

성공적인 어촌체험마을 컨설팅을 바라며

지난 6일 협회 회의실에서는 조금 색다른 회의가 열렸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 받은 어촌 체험마을 컨설팅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13명과 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13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색다르다'는 표현에 다소 이해가 갈 것이다. 관광전공 4명, 역사전공 1명, 수산전공 1명 등 대학교수 6명과 수산교육 전문가 2명, 행정 전문가 1명, 디자인 전문가 1명, 관광관련업계 대표 2명, 이벤트 전문가 1명 등 한 눈에 보기도 경력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가시적인 성과로 어업인들에게 다가왔다. 사실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지만

우리의 어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내외적인 어업여건 악화로 수산업 생산에만 전적으로 소득을 의존하기에 여러 가지로 한계를 노정해왔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수산업 생산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어업의 소득원 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는데 그게 바로 어촌을 체험 중심의 휴양지로 만들자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75개 마을에 모두 479억 원이 투자됐다. 성과는 금방 나타났다. 그 동안 어촌관광사업 하면 그저 민박 같은 숙박시설이나 횡집 정도로 인식하고 있던 것을 어업인들이 어업현장에 직접 나서 체험중심의 어촌관광상품을 선보이게 됨으로써 어촌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가능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 바로 우리 협회가 있다. 해양수산부 용역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업무를 맡은 협회는 이 사업의 성패는 어촌의 의욕적인 자발적 참여는 기본이고 어업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의 컨설팅에 맡기는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촌체험마을 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이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 등 사업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었다. 그래야만이 전문가들의 어촌지역에 대한 관심유도와 어촌체험마을의 내실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서로간의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공유를 해야 만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앞서 말한 다소 이색적인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협회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마을 1전문가를 매칭,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그 내용도 단순히 어촌 관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식, 문화, 생태, 환경, 인적 서비스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1마을 1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을 하기로 하고 현재 13개 마을을 선정해 실시 중에 있다.

한편 정부도 어촌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대대적인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조성도 현재의 75개 마을에서 112개 마을로 크게 늘려 그 동안 경관 위주의 어촌관광에서 벗어나 어업, 생태, 해양 레크리에이션 체험 등 창조적인 여가활동으로 국민 모두가 어촌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협회 역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계를 망라한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교감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의 정기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성공사례 등의 정보와 자료도 함께 수집해 이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또 직접 참여하는 관광으로 점차 진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트렌드에 맞는 역할을 제시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맺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